

“대학이 지역을 바꾼다” 광주RISE 본격 궤도 진입

최우수 계획 선정...217억 확보
5년간 4000억 투입 본격 사업화
인재·산업·지역 4대 과제 추진
17개 대학이 만든 혁신 실험장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17개 대학이 손을 잡고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가동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쓰는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RISE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광주, 대학과 손잡고 혁신 시동

광주시에 지역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RISE’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혁신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광주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RISE 기본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17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조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예산은 MECA(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AI) 산업 인재 양성, 리빙랩 기반 지역문제 해결, 초광역 협력 사업 등에 집중 투입된다.

●5년간 4000억 규모, 16개 과제 추진

전체 사업규모도 상당하다. 광주RISE 센터는 지난 4월 17개 지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돌입했다. 2029년까지



지난 5월27일 광주광역시와 17개 지역대학의 RISE 협약식이 열렸다.

광주시 제공

지 5년간 약 4000억원(연 8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지역 산업 연계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문제 해결 등 4개 방향에서 16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대학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환되는 구조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대학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설명회와 사전 협의회가 수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광주대, 조선대, 전남대, 호남대 등 총 1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각 대학은 자율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과제가 구성됐다. 광주RISE센터는 이후 간담회를 이어가며 대학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재·산업·지역을 잇는 4대 프로젝트

이런 광주RISE는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인재 Skill-UP’은 광주 9대 산업과 연계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이 핵심이다. 또 ‘기업 VALUE-UP’은 대학 내 창업 인프라를 통해 기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GROW-UP’은 문화예술, 돌봄, 관광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한 리빙랩

실험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대학 INNO-UP’은 평생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대학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RISE위원회는 광주시장과 전남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사업 전반의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광주RISE의 최종 목표는 ‘청년이 정주하고 산업이 뿌리내리는 도시’다. 2029년까지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양성하고, 대학 졸업 후 지역 취업률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실험과

피드백을 반복하며 장기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MECA 산업과 연계, 초광역 확장 추진

RISE는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MECA 산업 전략과도 연계돼 있다. 광주는 미래차 산업단지, 에너지밸리, AI융복합지구 등 국가 전략거점을 보유한 도시로, RISE를 통해 해당 산업의 고급 인재를 지역 대학이 직접 길러내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또한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와 협력해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며, 기업-대학 컨소시엄, 권역 공동 R&D, 맞춤형 인재양성 등도 추진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디지털·반도체·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초·중·고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RISE 사업이 광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지역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보현 광주RISE센터장은 “RISE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자율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RISE 체계 안에서 고교·대학·지역기업 간 연계는 핵심 요소다. 교육과 취업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대 재학생, 美 사우스앨라배마대학교로 어학연수 떠나

3~4학년 15명...26일까지 2주간
회화 중심 수업·테마별 문화활동
지난해 ‘상호협력 MOU’ 성과물
대학, 연수경비 80% 파격 지원

광주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영어역량 향상과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주 일정의 미국 하계 어학연수에 돌입했다.

14일 광주대에 따르면 진로 모색과 취·창업 준비에 한창인 3~4학년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연수는 지난해 10월 김동진 광주대총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사우스 앨라배마대학교(총장 조보너)와 맺은 상호협력 MOU의 첫 성과물로 주목받는다.

양 대학은 당시 학부 및 대학원생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수진 간의 상호 방문 및 연구 활동 협력 등 학생 및 교

직원의 교류를 통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위치한 현대 자동차 미국공장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학 협력의 가능성도 모색한 바 있다.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이번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에서 80%를 부담하는 파격적인 지원 속에 오는 26일까지 2주간 미국 사우스앨라배마대학교



광주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영어역량 향상과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주 일정의 미국 하계 어학연수에 돌입했다.

광주대 제공

에서 회화 중심 수업, 캠퍼스 체험, 테마별 문화 활동을 진행한다.

김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교내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연수 참여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낯선 환경에서도 주체적으로 배우며,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이기표 국제협력처장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서로 의지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말했으며, 조영아 교수는 “어학연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삶의 태도와 소통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라며 진지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